

상월 조사 100주년 기념 사업 집중

천태종 총무원장 정산 스님 신년 사업계획 발표



천태종이 불기2555년(2011년)을 상월 조사 탄신 100주년 기념의 해로 정하고 기록사진전, 유물전시관 개관, 원각불교문화원 설립, 한국불교미술종합대전 등 100주년 기념사업을 펼친다.

천태종 총무원장 정산 스님(사진)

은 1월 11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신년 사업계획을 발표했다.

정산 스님은 “상월 조사 탄신 100주년 기념사업 추진과 복지사업 강화로 종단의 사회적 책임을 완수하며 국내 인재양성과 건전한 다문화

사회 이룩, 세계 불교교류에 힘쓰겠다”며 상월 조사 100주년 기념사업, 복지사업, 국제불교우호교류사업, 교육사업 등을 발표했다.

상월 조사 탄신 100주년 기념사업은 <상월원각대조사 생애> <한국천태종사> <대조사어록 및 법어집> 등 서적 출판을 비롯해 △상월 조사의 유품 등이 전시될 유물전시관 △국제학술대회 개최 △한국불교미술 종합대전 △천태차문화대회 △지화 특별전 등이다.

복지사업은 (가칭)천태승려종합복지시설 설립, 대복지원 사업, 저개발 불교국가 지원사업 등을 중심으로 추진된다. 천태승려종합복지시설은 구인사 인근에 건립될 예정이며, 천태종 스님들에게 안정된 노후생활을 보장해 수행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게 된다.

이와 함께 상호회를 운영해 종도들에게 장례서비스도 제공한다. 서울 명락사를 중심으로 다문화

인의 한국전통문화 체험을 돕고, 내국인들의 다문화인식 개선사업도 함께 진행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다문화인 템플스테이 △다문화음악제 △다문화가족 합동콘서트 △다문화가족 견기대회 등을 개최한다.

정산 스님은 “선진적인 다문화사회를 이룩하기 위해선 다문화가정에 대한 내국인들의 인식 개선이 우선되어야 한다. 다양한 사업을 통해 다문화가족들이 한국전통문화를 익혀 한국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인재육성과 학술연구에 대한 지원도 확대키로 했다.

천태종은 단양에 원각불교문화원을 설립해 청소년 지원활동을 벌인다.

정산 스님은 “인재 육성은 불교 미래를 좌우하는 중요한 불사이다. 불교의 사회적 책임 중 하나가 어렵고 힘든 사람을 구제하는 일이기도

한 만큼 원각불교문화원을 통해 인재 육성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천태종은 미래 불교 인재 양성을 위해 종립 금강대 학생 전원에 장학금 지급과 기숙사를 무료로 제공 중이다. 올해에는 기숙사를 신축해 학생들의 면학 분위기를 조성해 더욱 힘쓸 예정이다.

특히 상월 조사 탄신 100주년을 기념해 원각학술상을 제정해 우수 불교학자를 발굴·육성키로 했다.

국제불교우호교류사업의 일환으로 열릴 한중 천태국제학술대회는 6월 중국 최초의 불교사원인 낙양 백마사에서 열린다. 이외에도 한국 불교전통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공간인 (가칭)한마음수련원도 연내에 착공한다.

또, 천태종 복지 관련 종사자들의 축제 한마당이 될 천태복지대회 개최, 진해노인전문요양원 신축, 천태복지연구소 개소 등도 올해 중 추진키로 했다.

조동섭 기자

종편 선정, 불교계 방송언론 '긴장'

광고 시장 위축·언론 다양성 위협 우려

정부의 종합편성채널 및 보도채널 사업 선정 후 각 계의 비판이 끊이지 않고 있다. 민주당 문화체육관광통신위원회는 긴급 종편 토론회를 1월 5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개최했다.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도 기독교회관 대강당에서 종편 선정에 대한 토론회를 11일 열었다. 주승용 국회의원(민주당)은 11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종편 선정에 대한 전문의약품·의료기관 광고 허용에 관한 토론회를 마련했다.

불교계 언론도 종편 선정에 따른 위기의식을 느끼고 있다. 불교방송은 종편 출범에 따른 영향을 분석하며 대응책 마련에 고심 중이다. 불교TV는 아직까지 공식적인 입장은 밝히지 않고 있지만 종편 선정에 따른 영향에 대해 내부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

이와 관련 불교방송과 조계종 미디어홍보담당 특별보좌관 장적 스님의 의견을 들어봤다.

박기범 기자

“종교언론 공동 대응 필요하다”

조계종 미디어 홍보담당 특별보좌관 장적 스님

조계종 미디어 홍보담당 특별보좌관 장적 스님(사진)은 기존 지상파 방송사와 종편 선정사의 치열한 경쟁이 시작되고, 경쟁에서 살아남는 방송사만이 유지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우리나라의 방송 광고 시장의 확장 가능성이 적은 상황에서 과도한 종편 사업자들이 선정됐기 때문이다.

“정부도 의약·주류 광고 및 중간 광고 허용을 검토하고 있다. 한국방송광고공사의 위헌 판결로 광고시장 축소는 이미 우려돼 왔다. 향후 방송광고공사 해

체 과정을 지켜보며 불교계 뿐 아니라 종교계 방송 언론 전체가 공동 대응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장적 스님은 또 광고 시장 축소로 불교 방송언론의 타격이 자명하기 때문에 불교계 방송언론의 자구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언론 전체가 공동 대응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최대 80% 수익 삭감 우려된다”

박원식 불교방송 보도국장

불교방송은 전체 광고의 80%를 한국방송광고공사로부터 배분받는다. 한국방송광고공사의 방송광고 독점 판매가 위한 판결을 받고, 종편에 4개 사업자가 선정되자 불교방송은 광고 수익 축소를 걱정하고 있다. 자체 시뮬레이션 결과 종편이 출범하면 70~80%의 수익이 감소할 것으로 나타났다.

박원식 불교방송 보도국장은 광고 시장이 확장될 여지가 없는 상황에서 정부가 종편 사업자를 선정해 방송의 빅뱅이 예

상된다고 지적했다. 또한 언론 다양성의 마지막 루인 종교방송과 지역민영방송의 위축으로 종편 선정사의 언론 독점 심화를 우려했다.

“불교계 종합미디어를 고민해야 한다. 종편사들이 불교계 비방 보도를 일삼으면 불교계는 휘청 거릴 수밖에 없다.”



상된다고 지적했다.

“불자 결집된 힘 보여줘야”

자승 총무원장·조계사 주지 토진 스님, 성도재일 맞아 쓴소리

성도절을 맞아 전국 3000여 사찰에서 MB정부를 규탄하는 동시법회가 열린 가운데 자승 조계종 총무원장 스님과 조계사 주지 토진 스님(사진)이 정부와 여당을 비판하고 나섰다.

조계종 대전비구니 청림회(회장 효경)는 충남대 정심화홀에서 1월 11일 성도절 대법회를 봉행했다. 이 자리에 참석한 자승 스님은 “지난 국회에서 불교문화재 예산 등이 쉽게 처리된 것은 불교신도들의 힘이 결집되지 않아 여야 정치인들이 불교를 홀대하기 때문이다”라고 지적했다.

불교가 일치단결 하지 않으면 선거에서 표를 중시하는 정치인들이 계속 불교를 외면할 것이라는 질타다. 자승 스님은 최근 종단이 보여준 일련의 행동이 정부여당을 배척하는 것이 아닌 민족문화재 수호를 위한 것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불



자들이 종단을 믿고 힘을 모아줄 것을 당부했다.

조계사 주지 토진 스님도 이명박 대통령의 일방적 국정운영을 비판하며 국민을 위한 깨달음을 얻을 것을 촉구했다. 조계사는 11일 대웅전에서 민족문화 수호와 한나라당 반대를 위한 성도재일법회와 삼보일배를 가졌다.

이날 법회에서 주지 토진 스님은 “마음의 깨달음을 얻고 유지해 가

는 사람이 가장 뛰어난 사람이다. 성도재일을 맞아 깨우침이 있는 사람의 중요성을 새삼 느낀다. 그런 사람이 정치를 해야 국민이 편안하다”고 언급했다. 이명박 대통령이 돈보다 중요한 것이 있다는 세상이치를 모르고, 4대강 사업 등을 성급하게 추진하고 있다는 비판이다.

토진 스님은 또 “대통령이 돈에 눈이 멀었다. 마음의 깨달음을 얻어서 국민의 재산과 안전 수호를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조계사 스님들과 불자들은 법회 후 경내에서 민족문화 수호와 한나라당 반대를 위한 3보 1배를 가졌다. 영하 8도까지 떨어진 이날 스님들은 추위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오체투지로 행렬의 앞길을 열었다.

박기범 기자

은혜사 중앙종회의원 재선거 중지

조계종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범여)는 1월 12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에서 제236차 회의 열고 은혜사 교구선거관리위원회의 선거 중지 요청을 수용해 선거를 무기한 연기했다.

은혜사 교구선거관은 10일 “법규위가 7일 제70차 회의에서 위원

한 결정으로 정상적인 재선거가 불가하다”며 중앙선거관에 17일 예정된 은혜사 중앙종회의원 재선거의 중지와 연기를 요청했다.

중앙선거관은 법규위원회에 후보자를 결정한 법적 근거 등을 소명하라는 질의서를 발송했다.

조동섭 기자

경기도 39개 사찰에 61억원 지원

조계종 사찰 대응 주목

조계종이 정부 예산지원을 거부한 가운데 경기도가 관내 39개 사찰에 보수지원비 61억원을 지원한다고 밝혀 조계종의 대응이 주목된다.

경기도는 1월 13일 “올해 도내 전통사찰 중 39개 사찰에 전통사찰 보존정비 지원사업비 61억 원을 지원한다”고 발표했다.

지원 대상사찰은 수원 용주사,

부천 석왕사, 여주 신륵사, 과천 연주암, 남양주 불암사, 파주 보광사 등이다. 이들 사찰에는 4000만원~1억8000만원이 각각 지원된다.

경기도는 이번 지원사업이 지난해 해당 사찰의 요구로 계획된 사업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해당 사찰에서는 종단 방침에 따르겠다는 입장을 보여 조계종의 대응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조동섭 기자

(사) 한국불교 금강선원 학인모집 안내

- 직장에서 가정에서 불교 교리 학습 - 불교통신대학·대학원

◆대학장 : 호 암 ◆대학원장 : 서무선

발심을 하고도 시간상, 거리상 제약으로 부처님 공부를 체계적으로 공부할 수 없는 불자들이 위해 통신과정을 마련하여 각자의 근기에 따라 학습 진도를 조절하면서 공부할 수 있도록 통신교재가 준비되어 있다.

- ◇통신대학 : 기초과, 중등과, 고등과, 대학과 (각 6개월 과정 - 2년)
- ◇통신대학원 : 경, 율, 론, 선, 밀교 (대학원 - 각 1년 과정)
- ◇원서 접수 및 교부 : 수시접수

- 강원 교육 -

나란다삼장불교대학

◆학 장 : 성 덕

강원교육을 이수하지 못한 스님과 출가를 원하는 불자 및 초심자를위하여 의식을 포함한 기초과정이 마련되어 있다.

- ◇모집학과 : 사미과, 사집과, 사교과, 대교과 (각 6개월 과정)
- ◇원서교부 : 2011년 1월 10일 부터
- ◇전형방법 : 서류전형 및 면접
- ◇개 강 : 2011년 3월 9일 수요일
- ◇교 수 진 : 활안 한정섭스님, 호암스님, 서무선박사님, 이지행교수, 김익순교수외
- ◇출가수행, 사암, 포교원운영 행정지원
- ◇출가 수행자를 위한 기숙사 완비
- * 우수학인 장학금 지급

- 범패·작법무 - 불교예술대학

◆교 수 : 해 사

불교예술의 계승 발전과 지도자 양성을 목적으로 교육하는 불교예술대학에서는 무형문화재 제50호 영산재 이수자 해사님을 교수로 초빙하여 불교예술의 진수를 배울 수 있다. 불교예술의 관심을 가지고 배우고자하는 학인들의 좋은 기회가 되리라 생각합니다.

- ◇강의내용 : 사물타루는 법 등 기초의식교육
- ◇원서교부 : 2011년 1월 10일 ~
- ◇수업시간 : 매주 화요일 오후 3시 ~ 6시
- ◇개 강 : 2010년 3월 8일 화요일

금강선원 기로원 입소자 모집



금강선원에서는 복지사업의 일환으로 제천 기로원을 완공하여 비구니 스님과 여성 불자들이 편안한 노후를 지낼 수 있도록 준비하였습니다. 복지타운으로 이용될 요사채에 입소하실 비구니, 여자 불자들의 신청을 받고자 하오니 뜻있는 분들의 참여를 바랍니다.

- ◇방 구 모 : 원룸형 8평 18실 (방1개, 베란다, 욕실)
- ◇입소자격 : 비구니, 여성불자

* 자세한 내용은 금강선원 사무국 ☎ 02)969-2410으로 문의 바랍니다.